

멀티미디어 시대의 민화 기록과 국제 협력

マルチメディア時代の民話記録と国際協力

일본 전수대학 히구치 아츠시 (日本・専修大学 樋口 淳)

I 왜서「일본 민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가 ?

(なぜ「日本民話データベース」が必要か?)

1. 일본에서의 민화(民話) 자료 연구의 역사 (日本における民話資料研究の歴史)

일본 민화의 기록은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의 『도노 이야기(遠野物語)』(1910)이후, 민속학 연구, 구승 문예학 연구의 일환으로써 실시되고 왔습니다.

야나기다는, 후에 『옛날이야기 채집의 서표(昔話採集の葉)』(1933) 『옛날이야기 채집의 수첩(昔話採集の手帖)』(1936) 등에 따라서, 옛날이야기 기록의 방법을 확립 하고, 『전국 옛날이야기 기록(全国昔話記録)』 같은 기준으로 되는 옛날이야기집의 편찬을 지도지도 했습니다.

더더욱『일본 옛날이야기 명휘(日本昔話名彙)』을 간행 하고, 일본의 옛날이야기를 이야기형話型에 따라서 정리 했습니다.

야나기다의 이 노력은, 세키 케이고(關敬吾)에 이어지게 되고 『일본 옛날이야기 집성(日本昔話集成)』, 『일본 옛날이야기 대성(日本昔話大成)』 같은 우수한 카탈로그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2. 아날로그·테이프에 의한 기록 (アナログ・テープによる記録)

일본의 민화 기록은, 테이프 리코더가 보급되기 이전은 주로 필기에 의해서, 문자 데이터만의 기록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세트·테이프의 등장 한 1960년대 후반 이후, 음성 데이터를 동반하는 기록이 주류로 되었습니다.

기록자는, 대학, 연구 단체, 지방 자치체, 방송국등 여러가지 기관에 속하고, 주로 개인이며, 기록 테이프는 개인에게 의해 보존·관리되어 있는것이, 태반입니다.

기록양을, 정확하게 파악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서른건을 넘는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봐도, 뛰어난 연구연구 성과입니다.

단지, 이들의 기록은, 거의 전부가 아날로그 녹음이며, 때와 함께 열화 하는

운명에 있습니다.

3. 일본 민화의 현상 (日本民話の語りの現状)

민화를 기록 하는 노력은, 현재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우수한 화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국에 도시화가 진행 되고, 민화는, 급속히 화자 (이야기하는 사람)과 청중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상실하여갑니다.

특히 민화의 배경으로 되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잃어졌기 때문에, 민화를 말하는 노인의 말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에게, 이해 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II 「일본민 화 데이터베이스」작성의 실제 (「日本民話データベース」作成の実際)

1. 일본민 화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日本民話データベース」作成の目的)

일본민 화 데이터베이스 작성 위원회는, 2001 년 4 월의 발족 이래, 일본 학술진흥회의 연구 조성에 따라서, 약 16000 건의 옛날이야기의 애널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 했습니다.

2005 년도의 조성도 내정하고 있고, 합계 22000 건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할 예정입니다.

2005 년도의 예산은, 860 만엔을 예정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일부 공개

2. 인터넷에 의한 일부 공개 (インターネットによる公開)

그 성과는, 최종적으로, 화자(話者), 기록자, 이야기형(話型), 지역, 키워드 등에 따라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됩니다.

그리고, 민속학 박물관, 대학, 연구 단체등에 바쳐지고, 연구사의 공동 이용에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성과의 일부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기에, 보십시오.

<http://minwadata.fm.senshu-u.ac.jp/EastAsiaMinwaDB/about/index.html>

인터넷의 사이트는, 현재,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있고, 금년도중에 스페인어 사이트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등의 사이트는, 각국의 민화 연구사에게 협력을 호소하기 위해서, 샘플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3. 기록 자료의 산일 (記録資料の散逸)

민화의 기록자 자신이 고령화 하고, 경우에 따라서 사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그 때문에, 그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누구의 데이터나, 어디 것이고— 짓는다, 몇시의 데이터,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민화의 기록자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테프를 2 차적인 자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문자화 한 시점에서, 불필요인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이것은, 원래, 민화가 문자에 쓰여진것이 아니라, 이야기된 것을 생각하면, 큰 과오입니다.

때로는, 신중해서, 성실한 기록자는, 자기인 기로쿠 테프를 공민관이나 도서관 등의 공공 기관에 위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공공 기관에는 전문가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대개, 수장고에 방치되어서, 자료는 열화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민화의 애널로그 데이터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지역적인 치우침 (地域的な偏り)

현재, 일본민 화 데이터베이스 작성 위원회가 디지털화 하고 있는 데이터는, 지역적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작성 위원회에는, 17 명의 위원이 있어서, 일본의 지역을 거의 망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국의 옛날이야기를 균일하게 디지털화 하는 것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직 시작하자 마자여서, 우리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시작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은 협력자에 이해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 작업자의 능력 (作業者の能力)

실제, 예산은 충분해서, 이야기를 1 개 정리 하는 작업에 1000 엔 정도의 사례가 지불되기에, 학생은 기뻐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이나 젊은 연구사의 협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사 테프는, 조사자 자신이 정리 하는 것이, 이상입니다.그러나, 조사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컴퓨터의 지식이 없습니다.

테프를 듣고, 내용을 파악 하고, 분류 하고, 지역, 화자등의 세세한 데이터를 기입 하기에는, 숙련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지식 레벨로서는, 충분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데이터 입력의 주력이 된것은, 지역의 민화에 관심을 가지는 주부였습니다.

우리들은 주부가 우수한 사무 처리 능력과, 민화에 대하는 관심의 높이에 유지되어서, 오늘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데이터베이스의 작업 개시 당초는, 디지털화의 작업자로서, 민속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젊은 층의 연구사의 협력을 기대 하고 있었습니다.

6. 지역이나 공공 기관과의 협력 (地域公共機関との協力)

민화 데이터베이스의 금후의 과제로 해서, 지역의 교육위원회나 공민관, 관광 협회등과의 제휴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화는, 화자나 기록자뿐이 아닙니다.

원래, 지역 전체의 문화유산입니다.

지역의 교육이나 관광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승되어 가는것입니다.

금후는, 인터넷등을 이용 해서, 민화를 키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쓸모 있는 서비스를 전개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저작권 (著作権問題)

민화 데이터베이스는,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사용료는 지불 지금까지.

그러나, 인터넷으로의 공개에는, 화자와 기록자의 양해가 필요합니다.

화자의 대부분은, 고령으로, 경우에 따라서 사망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인터넷으로의 공개 허가가, 그만하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민화의 저작권은, 화자와 기록자의 쌍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8. 데이터 관리와 기술상 문제 (データの管理と技術)

2005 년도에 완성할 예정의 데이터베이스는, 1000 기가바이트, 즉 1 테러바이트 정도의 용량입니다.

다행히, 최근 1 테러바이트의 하드·디스크가, 비교적 간단하게 입수하게 되었기에, 용량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보수 관리에는, 상당한 기술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후, 「일본민 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 들이는 박물관이나 연구 기관에서 발생 하는 트러블에, 어떻게 대응 하는가가, 문제로 됩니다.

Ⅲ 민화 데이터베이스의 국제 협력 (民話データベースの国際協力)

1. 민화의 세계적인 확대와 AT 카탈로그 (民話の世界的な広がり)와 AT 카탈로그)

현재의 민화의 국제 비교 연구는, 아알네·툼푸손의 AT 분류를 국제 기준으로, 각국의 연구 기관이 소장 하는 자료를 연휴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는 최인 학씨의 카탈로그가 있고, 일본에는 세키 케이고 씨의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탈로그들은, 전부 문자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2. 구승 자료의 원점에 돌아 간다 (口承資料の原点に帰る)

민화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화 계획은, 이 기본을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로 대치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음성 자료에, 종래의 문자 자료나 영상 자료를 덧붙이고, 멀티미디어를 이용 한, 새로운 자료 박물관을, 인터넷상에 쌓을 수 있습니다.

한번 완성된 디지털데이터 베이스는, 여러가지의 모양으로 진화 합니다. 능숙하게 보수 관리하면, 데이터는 마사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다른 성격의 자료를 덧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기술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가까운 장래에는, 실로 간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기본 데이터 그자체가, 잃어져 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3. 한국과 일본의 협력 (韓国と日本の協力)

한국과 일본은, 이 사업의 파트너로서, 대단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일본과 같이, 60 연대 이 降의 테이프 리코더의 보급으로, 많은 아날로그 자료의 축적이 있을 것입니다.

더더욱, 한국은 IT 선진 지역이기 때문에, 디지털화의 처리에도 문제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4. 최 인학 과 세키 케이고 의 실적 (崔仁鶴と関敬吾の業績)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국에는, 최 인학씨 와 세키 케이고 씨의 노력에 따라서, 국제 비교를 위해서 중요한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이 2 개의 카탈로그로서는, AT 과의 관련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민화 데이터를 비교 하고, 교환 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단단히 완성되고 있습니다.

IV 정리 (まとめ)

민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일본민 화 데이터베이스 작성 위원회는, 많은 행운에 복했습니다.

우선, 21 세기에 들어가서 컴퓨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되고, 우수한 성능의 디지털화 처리가, 값이 싸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 성과의 공개 촉진과, 국제화의 덕분으로, 학술 진흥회에 「연구 성과 공개」라고 말하는 새로운 연구 조성이 태어나고, 이 조성에 따라서 위원회는, 거의 초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 제공자와 작업자에게 보답합니다.

그러나, 작업은 시작하자 마자입니다.

우선,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타이완, 베트남등의 동아시아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연휴를 저울, 장래적으로는, 유럽이나 어메리커에도 협력을 요청 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